

개헌 논의...野 '불지피기' vs 與 '불끄기'

손학규 "권력구조 개편위한 폭넓은 공론의 장 개설해야"

새누리 "개헌은 블랙홀" 신중론 우세...박대통령도 반대

개헌을 놓고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는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권력 분점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반면, 새누리당은 비주류의 인사를 제외한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헌론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까지 1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주최 신년 대토론회를 통해 개헌론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손 고문은 이날 기초연설문에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며 여기에는 개헌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이날 열린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개헌 논의 참여를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한경쟁의 정치구조를 유발하는 제약적 통제에 대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남용해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한다면 6·4 지방선거 때 아울러서 하

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헌이 모든 쟁점을 흡

수해버리면 자칫 박근혜정부의 국정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큰 방점을 두고 당장 급격히 추진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개헌보다 더 급한 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블랙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내부 갈등 기류도 연쇄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신년 대토론회에서 기초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필승 겨냥 민주 '양갈래 행보'

北인권민생법 준비 착수...與 '공천폐지' 압박

민주당은 16일 '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 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압박하는 등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양갈래 행보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가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북한인권민생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햇볕정책 2.0'을 통해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개혁 공약 파기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북한인권민생법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성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과 정청래 홍익표 윤후덕 인제근 의원 등이 TF에 참여키로 했다.

이들 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개별 입법안을 통한 당 차원의 단일 북한인권민생법을 발의하는 한편, 기존 햇볕정책에 대한 일각의

'대북 퍼주기' 논란을 극복할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여권과 보수층의 '중복' 공세를 피하고 보수와 진보 양쪽을 아우름으로써 당의 외연을 넓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로 사실상 선취한 새누리당에 대한 '공약파기' 공세로 여권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데도 주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대선 3대 의제인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정치쇄신을 강고히 파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민약속 파기 종착지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당 약속살리기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무신불립(無信不立) 정권의 표본"이라며 "표가 필요할 때는 간과 쓸개라도 내줄 것처럼 공약하다가 당선되니 입을 씻는 구대정치의 표본"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공천비리 연루자 정계 영구퇴출

선거 개입 공무원 공소시효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새누리 최고위 보고

새누리당이 공천 비리에 관련된 사람은 다시는 정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자 현행 6개월인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의 공소시효를 20배에 달하는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협의 정도만 기재된 공직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전과 공시제'와 정치 철세를 알리기 위한 '정당 이력제'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에 대한 부담을 다른 정치개혁안을 통해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16일 이 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후보자의 이름을 추천 순서대로 세로로 적도록 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반영, 추

첨 대신 '교호 순번'으로 하고 이름도 가로로 나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호 순번이란 예컨대 후보자가 3명이면 각각의 이름을 공평하게 번갈아 배열한 세 종류의 투표용지(갑-을-병, 을-병-갑, 병-갑-을)를 같은 비율로 넣어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방 신문들이 선거 기간 정확하지 않거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해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적지않다고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공정심의기구'를 신설해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6·4 지방선거부터 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연령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시민고충상담' 1일 센터장 활동

민주 광주시당서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은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설치된 '시민고충상담센터' 1일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광주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시민들은 이날 ▲임곡동 일대 가로등 설치 및 제방도로 안전펜스 설치 ▲신가 2근린공원 리모델링 요구 등 시민 안전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고충을 센터장에게 건넰다.

이 의원은 인도와 가로등, 중앙선이 없는 위험천만한 지역에 살고 있는 광산구 임곡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다른 어느 것보다 주민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실제 도로가 아니라 제방에 도로를 낸 것이라, 관련 법률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조속히 숙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신가 2 근린공원 리모델링' 요구에 대해서는 "광산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근린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신가동 공원을 재정비해서 시민들이 찾아가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安 싱크탱크 '내일' 이사장

운영관 전 장관 내정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에 운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안 의원의 정책포럼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했으며 내일 출범 이후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윤 전 장관은 학술회의 참석 차 이날 외국으로 출국했으며 오는 19일 귀국한 이후 내일의 본격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5월 출범 당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내일'의 이사장에 임명했지만, 최 교수가 안 의원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이사장직이 공석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월 지방선거 선거인 수

광주·전남 338만2933명

오는 6월 치러지는 제6회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선거인수가 338만2933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4일 치러질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에 적용하게 될 인구 수 및 세대 수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147만4076명, 56만4765세대라고 밝혔다. 인구 수는 지난해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3만2309명(2.2%)이 늘었고, 제18대 대선에 비해서는 1098명(0.1%)이 증가한 수치다.

전남의 인구 수와 세대수는 각각 190만 8857명, 81만7454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각각 0.3%(6006명), 0.1%(2410명) 감소한 수치다. /최권일기자 cki@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원 5000수익 최고위치,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룬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전문 원룸

룸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에술대 2분 코너앞

룸 13개(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 최고위치 월수익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수완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쌍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을 대로변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업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 12억2천
- 금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평) 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상업지 694㎡(210평)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10억6천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금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청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 공시지에 매도 3860만원 통물사육·아적장등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매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야 무안군 풍탄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할적합 건물 합평군 월야면 땅 2657㎡(804)건물 2층 57평 은행 2억 2억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전원주택지 청풍동 777㎡(235)1억5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